

“달힌 지갑 열어라”... 대형마트, 신년맞이 할인전

체감경기 ‘공공’... ‘막판특수’ 총력 이마트, 내년 ‘고래잇페스타’ 선배 롯데마트, 물가 잡기 ‘더햇’ 진행 홈플러스, 먹거리 최대 반값 행사



홈플러스 제공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과 고환율 등으로 인해 연말연시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공공 열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신년 맞이 할인 경쟁에 나선다.

25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마트는 2025년 새로운 마케팅 정책, ‘고래잇 캠페인’을 선보인다.

‘고래잇 캠페인’은 △대규모 할인 행사 ‘고래잇 페스타’ △특별·단독 상품 ‘고래잇 템’ △가격 프로젝트 ‘응(%) 가격’ △‘e머니 리워드’ 등 네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고래잇 페스타’는 랜더스데이·썬데이와 같은 대형 행사로, 장기화된 고물가에 고객들이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벤트다. 이마트는 ‘고래잇 페스타’를 연간 5회 이상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첫 시작은 내년 1월1일 새해 행사로,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한우, 삼겹살, 딸기 등 먹거리는 물론 가전제품, 그릇 등 생활용품까지 인기 상품을 파격적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과 고환율 등으로 인해 연말연시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막판특수’를 붙잡기 위해 신년 맞이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인가격에 선보일 계획이다. ‘고래잇템’은 품질과 가격을 대폭 혁신한 상품이다. 이마트만의 단독 상품 혹은 경쟁업체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가진 상품을 선보인다. ‘응(%) 가격’은 이마트가 올해 진행했던 가격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매달 진행했던 생필품 최저가 수준 할인 행사 ‘가격파격선언’도 이어진다. e머니 등 ‘리워드’ 혜택도 강화한다. 고래잇페스타 기간 e머니 제공 행사, 고래잇템 구매시 e머니 스탬프 적립 등 다양한 리워드 혜택을 신설한다.

롯데마트·슈퍼도 26일부터 보장된 품질과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담은 단독 물가잡기 캠페인 ‘더햇’을 진행한다.

‘더햇’은 ‘이번주 핫프라이스’, ‘이달의 핫 PB’, ‘공구핫딜’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번주 핫프라이스’는 기존 핫프라이스 프로모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핫프라이스 상품을 매주 1개에서 매주 3개 내외로 늘려 운영하고, ‘롯데마트 GO’ 앱 특가 서비스도 함께 적용한다. ‘이달의 핫 PB’는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PB 상품을 한 달간 8개 내외로 선정해 선보인다. 롯데마트·슈퍼가 파트너사와 협업해 단독으로 기획 제작한 ‘공구핫딜’ 상품은 한 달간 연중 최저가로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 참여 프로모션 ‘My 핫프라이스’도 격월로 진행한다. 롯데마트·슈퍼는 홀수달에 두 상품군을 놓고 고객 투표를 실시, 높은 투표를 받은 상품군에 포함된 상품을 한가지 선정해 짝수달에 ‘이번주 핫프라이스’로 선보인다. 투표 참여를 희망할 경우 투표 기간 ‘롯데마트GO’ 앱에 접속하면 된다. 1월 투표는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첫번째 ‘더햇’ 프로모션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번

주 핫프라이스’에서는 ‘남해안 생굴(100g/냉장)’을 행사카드(롯데/신한/NH농협/삼성)결제 시 25% 할인한 2200원대에, ‘우동 2인분 상품 14종’은 행사카드로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의 핫 PB’에서는 ‘요리하다 바삭존득 꺾바로우(550g)’와 ‘요리하다왕교자만두(910g)’를 1000원 할인한 각 6900원대에 판매한다. ‘공구핫딜’에서는 ‘공구핫딜 케라시스 단백질 크림 염색약(240g)’과 ‘공구핫딜 고래사 꼬치어묵(12입)’을 각 8900원, 6900원대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신년 맞이 ‘반값 하나 더 데이’를 진행한다. 새해에 수요가 높아지는 육류, 계란, 떡국 재료 등 각종 먹거리를 최대 반값 할인 또는 1+1 혜택으로 선보인다.

28일부터 29일까지는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을 행사카드 결제시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은 다음달 1일까지 마트에서 최대 반값에 판매하며,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신한·삼성카드 마트에서 7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한돈 냉동 삼겹살 전품목’을 50% 할인하고, 행사카드 결제시 ‘두백감자(2kg)’를 4900원대에 내놓는다. ‘대란(30구)’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판에 9900원대에 선보인다.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AI 가격혁명’도 함께 진행한다. ‘한송이 바나나(송이)’는 2900원대에, ‘호주정정우를 사용한 언양식 석쇠불고기(600g)’와 ‘황태채(300g)’는 9900원대에, ‘영해·남해산 시금치(단)’은 2900원대에 선보인다. ‘하얀햇살 우리쌀 떡국떡(1kg)’은 3900원대에 준비했다.

텔리 신상품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도 선보인다. 가격은 1만1900원대로, 출시를 기념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오프라인 구매 고객에게 치킨 무를 증정한다.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새해를 맞아 주요 브랜드 가전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MEGA가전 워크’도 진행한다. 홈플러스 단독 혜택으로 삼성·LG 대형가전 행사상품을 구매할 경우, 10% 즉시 할인 혜택을, 신한·삼성카드로 행사상품 구매 시에는 카드 할인 10%가 적용된다. 또 신한·삼성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구매금액대별 최대 2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전남중기청, 전통시장서 소비 캠페인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 23일 연말 내수·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에서 연말 소비진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신영보증재단, 광주 상인연합회 등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비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양동시장 점포를 찾아

생필품, 농수축산물 등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소비진작 캠페인을 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연말 송년회 등 공공기관 및 기업, 시민들이 릴레이식 소비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전남신보, ‘부패방지·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비윤리 신고시스템 등 청렴경영

전남신보보증재단(전남신보)은 최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과 더불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조직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 분석, 통제, 모니터링 및 개선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규격이다.

전남신보는 지난 2020년 최초 인증 후 △윤리경영 전담 조직 신설 △청렴감사관 제도 도입 △비윤리·반부패 신고 시스템 운영 일원화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부패 ZERO’를 목표로 청렴 경영을 실천했다. 그 결과 12월 부적합 사항 없이 갱신 심사를 통과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에 성공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인권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인권경영을 실행하

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남신보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인권침해 구제 절차 모의훈련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 노력 △인권경영위원회 정기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에서 기관운영 점수 97.2점(322점 중 313점 획득), 재기지원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 점수 92.1점(38점 중 35점 획득)을 획득하며 인권존중의 가치가 경영 전반에 내재화돼 있음을 증명했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결과는 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 실천과 부패 예방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패방지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바탕으로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문화를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광주은행, 목포시와 성탄절 의류지원사업 진행

은행연합회 ‘뱅크잇’ 사업과 연계 다자녀가구에 2천만원 의류 지원

광주은행은 지난 23일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목포시 나재형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산타오셨네’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산타오셨네’ 사업은 연말에 소외된 지역민을 보듬고, 온정을 나누는 광주은행의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복지사각지대의 아이들과 매년 크리스마스의 따뜻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다.

특히 올해에는 은행연합회의 ‘세상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 it)’과 목포시와 연계해 겨울철 의류 지원 캠페인으로 확대·진행됐다.

목포 지역 거주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23일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목포시 나재형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산타오셨네’ 사업을 진행했다.

가구 총 40가구에 2000만원 규모의 겨울 의류 지원을 펼쳤다.

이번 지원은 지역의 의류 매장과의 협업하여 대상 가정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류를 입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은행은 매장 방문과 구매를 지원해 지역 경

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저출산 문제는 당장의 여두운 현실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지역 내년 경제성장률 ‘1.4~1.7%’ 전망

광주연구원 ‘2025 경제전망’ 발간 코로나때보다 낮아...내수 지원을

내년 광주지역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25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에서 ‘2025년 광주시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광주지역 경제성장률은 1.4%~1.7%로 예측했다. 이 전망치는 코로나19 시기(2020~2022년)의 평균 경제성장률(2.0%)보다 낮은 수

준이다.

정책포커스에 따르면 광주지역 경제는 자동차의 수출 및 생산감소, 예술, 스포츠, 여가 부문의 높은 성장에 따른 서비스업의 소폭 개선, 전반적인 소비 감소 폭 확대 등의 원인으로 국내 성장률 전망(1.9%~2.1%)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 및 수출 감소 대비한 내수 판매 활성화 지원, 고용 및 소비 감소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위기 대응 모니터링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자동차 생산 및 수출 감소 대비를 위한 내수 판매 활성화 지원,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지원, 고용률 하방 압력과 소비 감소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역상품권 할인율 확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권범 기자